장백산천지

2021 년 9 월 3 일 제 415 기 금요일

2021 년 8 월 30 일 까지 해외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 억 8284 만 명

무시하던데서부터 심복하다

작년 2 월, 량충위 (梁琼予) 는 대만에서 남편따라 출국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만에 그곳의 전염병은 만연되기 시작했다. 충위는 서둘러 나라가 봉쇄되기 직전 대만으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잠시 할머니와 고모랑 함께 지냈고 남편은 여전히 현지에 남아 근무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이 나라의 전염병상황은 여전히 아주 심각했고 충위는 남편 때문에 늘 마음이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했으며 심리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이게 할 방법을 몹시 찾고 싶었다. 여러해동안 파룬따파수련을 통해 심신에 이득을 본 고모한테서 계발을 받고 그도 작년 8 월에 파룬궁'9 일 학습반'에 참석했다. 수련후 엄중한 변비와 생리통이 사라졌다. 83 세 할머니도 그녀와 함께 연공하면서 허리통증과 팔통증이 모두 사라졌다.

충위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구자 진언'을 자주 념하면 따파 (大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공계 출신인 남편은 무신론자였기에 그녀의 충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부했다. 할머니도 똑같이 손서의 안전이 고려되어 한번은 수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를 외우면서 손서가 따라 부를것을 분부하자 남편은 연장자의 호의를 거역할 수 없어 할머니를 따라 이'구자 진언'을 외웠다.

당시 남편 기숙사의 룸메이트는 기침을 매우 심하게 했고 심할 때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한 달 가까이 됐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비록 회사에서 정기적인 핵산검사를 하지만 남편은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기간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였고 이삼일 후 곧 괜찮아졌다.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충위와 마침 통화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남편에게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라는 긴급 통지를 보내왔다. 순간적으로 날벼락 같았고 '왜? 내가 확진됐는가, 아니면, 왜서 나를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위는 "그렇게 많이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 '9 자 진언'묵념을 시작해봐요" 라고 위로했다.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할게요"라고 남편이 답했다. 남편이 처음으로 이처럼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생사고비에 직면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충위가 파룬궁 제 5 장공법을 연마하고 있다.

그날 밤, 담당자는 남편의 룸메이트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같은 부서, 같은 기숙사에서 냉방, 욕실 장비를 함께 사용했고 한 달 중 4 일간의 휴가를 제외하고 거의 24 시간 동안 함께 지냈으므로 남편도 기숙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격리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 후, 2 주 간격으로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았고 3 회 연속 검사 결과 남편은 모두 음성반응이 었으며 룸메이트는 4 차 검사에서야 음성반응이 나왔다. 위험이 지난후 남편은 파룬궁에 대해 내심으로부터 탄복했으며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드렸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그도 '9 일 학습반'에 참가했고 보서 '전법륜 (轉法輪)'을 읽고나서야 파룬따파는 마음을 닦고 선을향하며 반본귀진할 수 있는 고덕대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연변 박해 소식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리련걸(李连杰)이 납치된지 2 개월이 되다

리련걸은 약 두달전에 납치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소식이다 .

연길시 리지여(李智茹)불법감금되다

리지여(여)는 근 80 세 노인이다 . 8 월 13 일 , 그는 북경공작팀에서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말에 기편돼 집을 떠났다가 건강검진을 마친후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불법감금 당했다 .

소식에 따르면 그는 연길구치소 세뇌반에 감금됐다고 한다 . 상세한 상황은 똑똑치 못하다 .

조양천 박광훈은 실종된지 반년 넘다

금년에 68 세인 파룬궁수련생 박광훈 노인은 일찍이 2004 년 좌우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진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발돼 룡정룡문파출소에 납치되어 각종 고문박해를 받아 신체가 불구로 됐다 . 걷기 어렵고 , 손 ,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 자녀도 없이 독신으로 거주하기에 일반적으로 외출하지 못한다 .

2020 년 8_9 월 , 연길시 진학파출소 몇명 경찰이 그의 자택을 강제수색 했고 , 대법사부님의 법신상과 대법책을 강탈했으며 , 하루동안 불법감금한 후 그를 풀어줬다 .

2021 년 2 월 6 일 , 연길시 진학파출소 몇명 경찰이 그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협했다 . 그 후 2 월말에 박 씨 노인이 실종됐다 .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 박광훈 소식을 아는 분은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조양천 최군영(崔群英)불법 징역형 선고 받다

연길시 조양천 파룬궁수련생 최군영은 불법징역형 1 년 6 개월 , 벌금 2000 원을 선고받았다 .

연길시 82 세 조선족 노인 안복자 구치소로 납치돼

[밍후이왕] 2017 년 4 월 , 당시 78 세였던 파룬궁 수련생 안복자(安福子)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다는 이유로 , 불법적인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감외집행(監外執行)'을 처분받았다 . 4 년 후인 2021 년 8 월 말 , 그녀는 다시 경찰에 납치돼 연길 구치소에 구금됐다 . 법원 관계자는 '재판결'이라고 했다 . 독거노인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올해 82 세 안복자(여)는 조선족이다 . 퇴직 교사로 부교수 직함이 있으며 , 현재 길림성 연길시 북산가에 거주한다 .

안복자는 위 전체를 절제한 오래된 환자로 , 복합성 빈혈 , 이중 폐렴 , 호흡부전 , 뇌혈전증 , 거유세포성(巨幼細胞性)빈혈 , 전신 부종 등의 진단을 받아 병세가 위중해지기도 했다 . 연변대학 부속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 그중 한번은 응급실 의사가 그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다 . 그러나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생활하여 건강을 회복했다 .

2016 년 상반기에 안복자를 비롯한 파룬궁 수련생 7 명이 오춘연(吳春延)집에서 법 공부하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 '전법륜' 을 읽었다 . 그들은 추적하던 경찰에게 납치됐다 . 그중 안복자 , 주희옥(朱喜玉), 오춘연 세 사람은 6 개월 동안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

2016 년 12 월 27 일 , 공검법(공안 , 검찰 , 법원)관계자는 사건종결을 명분으로 주희옥과 안복자를 법원에 데려갔으며 ,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 오춘연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않았다 .

그러나 2017 년 4 월 7 일 , 주희옥와 안복자는 갑자기 형을 선고받고 주희옥은 감금됐다 . 연길시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 년과 3 년을 선고했다 . 안복자는 항소했다 . 당시 그녀는 78 세였다 .

안복자는 파룬따파가 없었다면 몇 번이나 죽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 그녀는 "나는 괜찮습니다 . 나는 그 아이들(공검법 관계자를 지칭함)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 그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 그래서 공검법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리기 위해 항소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

안복자는 불법적인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 건강상 이유로 감외집행(監外執行)을 처분받았으며 , 현재 이미 형기가 지났다 . 그러나 최근 법원 관계자들은 그녀 집으로 찾아와 '재판결'이라며 82 세 노인에게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 2021 년 8 월 말경 , 그녀는 납치돼 연길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

선량한 노인이 고려한 것은 경찰의 미래였다

안복자 노인은 아주 선량하다 . 2013 년 2 월의 어느날 초저녁 , 노인은 집식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 . 그당시 그는 부좌석에 앉았다 . 택시에서 내릴때 노인의 외투자락이 차문에 끼인채 닫혔고 , 기사는 아무것도 모른채 가속페달을 밟았다 . 차가 떠나는 순간 그 를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 차 (뒷면에 계속)

(2 면의 계속) 뒷바퀴가 그의 몸을 깔고 지난간 후 급정거했다. 택시기사가 뛰어내려 그의 안부를 물었을때 노인은 <전법륜(转法轮)> 중의 한마디 구절 "좋고 나쁨은 일념에서 나온다(好坏出自一念)"가 생각나 기사에게 말했다. "괜찮으니 가보세요!"

사실 그때 노인의 손 합곡혈(合谷穴) 부위에 심한 상처가 났는데 살이 떨어져 뒤집혀졌다. 그러나 그는 기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말하지 않고 목수건으로 싸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10 여일간 연공을 통해 전부 나았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택시차 뒷바퀴가 그의 연약한 몸을 깔고 지났는데도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은 것이다. 며칠후 누군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할때 입었던 외투의 안주머니에서 사부님 설법녹음을 넣은 MP5 기모주머니 위에 남겨진 차바퀴 흔적을 보고서 격동돼 말했다. "진짜 대법사 부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셨네요!"

한번은 아침 연공을 하고 있는데 몇몇 경찰이 집으로 와서 노인을 납치했다. 경찰이 노인의 팔을 잡고 경찰차에 태우는 순간, 노인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마음속으로 '사부님,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세 번 외쳤다. 그러자 현장의 경찰들이 제압됐다.

노인은 정말로 경찰들을 아이로 여겼다. 노인은 자신을 납치한경찰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도 이'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러한 큰 자비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대법 수련 중에서 연마해낸 경지이다. 그러나 이렇게 선량한 노인이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간주해 구치소에 있다. 이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로써 용납할 수 없다. 박해에 가담한 공검법 관계자들은 선량한 노인의 대선지심(大善之心)을 저버리지 말고 박해를 멈추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당신들의 밝은 선택이다.

파룬궁 수련생 주희옥은 강제 실종, 오춘연은 박해로 사망

2017 년 4 월 7 일, 주희옥은 불법적인 징역 4 년을 선고받고 길림성 여자감옥에 3 년 넘게 감금된 후 석방됐다. 그러나 몇 달 후인 2021 년 3 월, 노인은 강제로 실종됐다. 노인의 박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 수련생 주희옥 실종에 관한 보충'과 '길림성 연변 사회보장관리국이 주희옥에게 20 만원을 갈취하다'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중공의 박해 중에서 파룬궁 수련생 오춘연은 여러 차례 불법적 감금되었고, 두 차례 노동교양을 처분받았으며, 고문학대로 치아가 모두 빠져버렸다.

오춘연이 거듭 납치돼 감금되어 고문 등 박해를 받자 그의 가족도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 특히, 경찰이 그의 어머니 앞에서 그를 구타하여 어머니는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 게다가 610 경찰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이에 놀란 어머니는 뇌졸중이 왔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다.

2016 년 3 월 3 일, 오춘연은 주거감시 대상이 된 후 반복해 괴롭힘을 당했다. 잔혹한 박해를 받은 적 있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몸이 마비됐다. 가족이 병원에 보내 치료했으나, 소용없었으며, 2017 년 6 월 억울하게 사망했다.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우리집 명을 구하는 처방

나는 무한에서 사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나의 막내딸과 사위는 무한 모 큰 병원의 호사다. 사위는 급진실의 주요호사다. 작년 역병시기 매일 각종 환자를 접촉하고 대면해야 했다. 그들의 병원에는 이미 적지않은 의사와 호사들이 감염됐다. 그들도 극도로 치솟는 공포감과 압력감에 휩쌓였다.

작년 1 월 18 일, 나는 그들더러 설전에 미리모여 함께 설식사를 하자고 했다. 당시 막내사위는 과묵하고, 초조하며 정신이 없어보여 나는 또한번 그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려주면서 반드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를 성심껏 념하라고 부탁하고는 이는 큰 재난이 올때 명을 보전할 수 있는 진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들 둘은 모두 새겨들은 모양이였다. 그리고 이미 '삼퇴'(당, 단, 대조직에서 탈출) 했기에 무한 폐렴이 가장 엄중한시기 병독의 포위된 환경에서 일했지만 모두 감염되지 않았다.

큰딸도 무한 모병원의 의사다. 역병시기 발열문진에 배정돼 한달간 무한 폐렴감염자를 포함한 발열 환자들과 직접 접촉했으나 그도 무사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남편이다. 작년 1 월 6 일, 남편은 운전해 합작인을 차에 태우고 함께 항목고찰을 떠났다. 일주일도 안돼 합작인이 무한 폐렴에 감염된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은 소식을 듣자 신속히 병원에서 검측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래도 본인은 여전히 감염됐다고 의심했다.

1 월 22 일오후, 큰딸은 아버지를 그의 병원으로 모시고 CT 를 찍었는데 결과는 무한 폐렴감염증상과 아주 비슷했다. 큰딸이 나에게 전화로 알릴때 나는 즉시 생각했다. "나는 대법제자다, 사부를 견정히 믿고 대법을 견정히 믿는다."나는 사부님의 법상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님께서 남편을 구해주시기를 빌었다. 당일 밤 8 시후 큰딸에게서 두 전문가가 반복해서 연구한결과 무한 폐렴이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전화왔다.

우리 일가족은 생사존망의 위험한 시기 모두 감염되지 않아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견증했다. 현재 이미 3 억 8 천 만명 되는 사람들이 '삼퇴'하였다.

당신도 '구자 진언'을 기억하고 '삼퇴'하여 평안을 보장하기 바란다.

정법 (正法) 을 비방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해쳐 천벌을 받은 사례

현대 사례 1: 벼락 맞아 숨진 법원 부원장 천징창 (陳景強)

전 료녕성 캉핑 (康平) 현 법원 부원장이자 심판위원회 위원인 천징창은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대대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파룬궁수련인을 모함해 죄를 뒤집어씌우고 억울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0 년 2 월 10 일, 천징창과 형사법정 재판장 판빈 (範斌) 등 사람들은 불법 조작으로 파룬궁수련인 왕진펑 (王金鳳) 에게 7 년, 리샤오핑 (李曉平) 에게 3 년이란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 달 뒤, 판빈은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 천징창도 사건에 연루됐으나 그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일시적으로 이를 빌미로 뇌물 사건의 추궁을 피해갔다. 천징창은 인맥을 이용해 결국 가벼운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4 년 후, 2014 년 8 월 15 일, 천징창은 이른 아침 낚시하러 저수지로 가다가 길에서 벼락을 맞아 숨졌다.

현대 사례 2: 벼락 맞아 숨진 미술교사 장퉁싱 (張同興)

료녕성 심양시 쑤자툰 (甦家屯) 촌 제 68 중학교 미술 교사 장퉁싱은 중공의 사악한 행동에 협력해 학생을 조직해 파룬궁을 비방하는 서명모집 활동에서 서명한 적이 있고, 이밖에 만화를 그려 파룬궁사부님을 공격하고 욕한 적이 있다.

2003 년 8 월 11 일, 장퉁싱은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비가 내렸다. 장퉁싱은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는데 누가 알았으랴. 번개와 함께 천둥이 울렸고 장퉁싱은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에 맞아 숨졌다. 장퉁싱의 사망 현장은 끔찍했다. 머리에 큰 구멍이 뚫렸고 후두부에 피가 흘렀으며 앞가슴과 머리카락은 모두 시꺼멓게 탔다.

서울 파룬따파 '9 일 학습반'을 찾은 사람들 "온몸을 둘러싼 밝은 에너지… '수련'의 오묘함 느꼈죠"

[밍후이왕] 서울 용산구 천제서점에서는 9 일간 파룬따파 [法輪大法] 수련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9 일 학습반'이 매달 열리고 있다 . 마음의 안정과 신체 건강에 탁월한 효과로 알려진 파룬따파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어 가족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지난 6 월 2 일 , 9 일 학습반에 참석한 이들 상당수가 가족의 권유로 시작한 경우다 .

"파룬궁을 배우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됐어요"

1 년 6 개월 수련한 이옥한 씨는 가족도 수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함께 9 일 학습반을 찾아왔다 .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이 씨는 파룬궁을 배우고 조용히 자신을 수련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마음이 복잡하면 연공을 해도 조용하게 집중하기 어렵지만 , 이 씨는 연공할 때 쉽게 입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 "제 5 장 공법을 할 때 눈을 감으면 아름답고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서 놀랐다"라고 말했다 .

요실금과 도수치료로도 낫지 않던 목 디스크도 사라졌다 .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건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것 . 이 씨는 "남편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자신도 모르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있었다"라며 "가정이 편안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말했다 .

신기한 체험을 하다

친언니와 함께 온 손 그레이스 씨는 우연히 마주친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파룬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련을 시작했다 . 손 씨는 "이전에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나쁜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괴롭고 , 머리가 늘 복잡해서 고통스러웠는데 , 9 일 학습반 이튿날부터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말끔해져서 신기했다"라고 말했다 .

손 씨는 9 일 학습반에 참가하면서 특별한 꿈을 꾸기도 했다 .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투명한 물에 몸을 씻고 세면대를 청소하기도 했고 , 9 일 학습반이 열린 텐티북스의 물건과 테이블 , 책장 등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

9 일 학습반을 다녀간 지인의 권유로 온 현종민 씨는 "연공할 때 겨드랑이를 비우고 , 손과 손 사이를 띄우는 것을 배울 때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면서 , "진실하게 사는 것 , 진리를 지켜가는 것 ,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 ,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수용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가 . 정말 너무 좋은 것이고 , 정말 진리이다"라고 말했다 .

김겨레 씨는 수련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9 일 학습반을 찾았다 . 코로나로 일을 잠시 쉬는 사이 기회가 생겼다 . 김 씨는 "우주의 생성이나 다른 물질세계에 대해 늘 혼자 상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 그런 내용이 '전법륜 (轉法輪)'에 나와서 정말 신기했다"라고 말했다 . 허기를 참지 못하는 습관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도 버리게 됐다 .

"연공할 때 몸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 받아"

몇 년 전 요리사 자격증 학원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파룬궁을 배우게 됐다는 중국 교포 이정숙 씨는 "파룬궁 수련에 대해 들었을 때 , 꼭 배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

한쪽 다리가 짧아서 서 있는 일을 하려면 고통이 너무 컸던 이 씨는 독한 술 한잔을 마신 뒤에야 고통을 모르고 잘 수 있었다 . 하지만 수련 후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잠들 수 있고 , 온종일 서 있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 "처음 연공할 때 척추가 뜨거워지고 , 결가부좌하고 제 5 장 공법을 연마할 때면 머리가 뻥 뚫린 듯 개운했어요 . 그 이후로 서서 일하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 이 씨는 힘들었던 과거를 돌라볼 만큼 생기가 넘쳤다 .

평소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김상수 씨는 "9 일 학습반이 끝나고 집에 가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면서 , "생각도 많이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 연공할 때 몸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

(뒷면에 계속)

우버기사 : '구자 진언'은 나를 도와 겁난을 넘게하다

"저는 자신이 아주 행운스럽다고 여깁니다. 하느님이 자비하셔서 저에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구자 진언'을 내려 주셔서 겁난을 넘을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월남계 미국인 괜 (Do Minh Quan) 은 완쾌된후 감개무량해서 말했다.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64 세인 괜은 우버 (Uber) 기사다. 작년 6 월, 미국전염병 고봉시기에도 그는 영업을 계속했다. 한번은 일반 승객을 태운후 그는 연속 마른 기침, 발열, 피로감, 산소부족, 호흡곤난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보내진 후 무한 폐렴확진 진단을 받았다.

"연속되는 기침과 수시로 나타나는 호흡곤난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진귀함을 체득하게 했습니다. 일단 그 한가닥 숨이 올라오지 못하면 곧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도 감염돼 입원했고 후각을 상실했다.

곤경속에서 그는 친구 하이유 (Hieu) 가 그에게 알려주었던 '구자 진언'이 생각났다. 하이유는 파룬궁수련생이다. 그는 늘 괜에게 생활중에서 위기혹은 곤난에 직면했을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를 성심껏 념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알려주었다. 괜는 말했다.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생명이 위독할때 하이유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구자 진언'을 성심껏 념하라고 당부한 후 따라서 또 문자까지 보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월남계 미국인 괜 (Do Minh Quan)

하이유는 또 괜에게 "파룬따파는 우주대법이기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구자 진언'을 념하고 파룬따파를 찬송할때면 우주중의 바른 에너지를 접수할 수 있어 신체상의 불정확한 상태를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괜은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기에 마음으로부터 념했습니다. 념하는 과정에 나의 마음도 점점 밝아지고, 낙관적이고, 안정과 평화롭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나더러 '구자 진언'을 더욱 믿게 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마음으로 아내도 빨리 회복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괜은 집에서 또 7 일 격리를 마친후 의사한테서 신체가 호전되었음을 확인 받았고, 따라서 한달후에는 완전히 회복됐다. 그의 아내도 3 개월 후에 회복됐다.

괜이 출원한후, 하이유가 그를 보러왔다. 하이유는 괜에게 그의 아내가 출근하는 가게주인 일가족은 그의 아내가 입원하기전 경상적으로 함께 점심 식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80 여세 부친을 포함한 온집 5 명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가게주인 일가는 모두 파룽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안 괜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파룬따파의 신기함이군요. 누가 그에대한 충분한 신심과 신념이 생기면 누가 복보를 받습니다."

(5 면의 계속) 물리학박사인 조인희 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수련을 시작했다. 2007 년 퇴임 후 거주하던 싱가포르에서 파룬궁 수련을 보게 됐고, 줄곧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배우지 못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얼마 전 청계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파룬궁수련생들을 보게 된 뒤, 바로 '전법륜'을 구매하기 위해 텐티북스를 찾아간 그는 때마침 9 일 학습반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참가했다. 그는 "평소 30 분만 있어도 졸곤 하는데, 이번 9 일 동안은 한 번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온 딸 양현경 씨는 이모들이 파룬궁 수련으로 건강해져 수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건강했던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아프셔서, 현경씨는 파룬궁을 권해드렸고, 어머니에게 권한 김에 자신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씨는 "수련을 시작한 뒤 어지럼증이 사라져서 놀랐다"라고 말했다.